

서울사랑시민상토목부분본상수상

이상한 대우건설 전무

“토목은 문화와 문명의 발원이 되는 공학”

조 직의 리더로서의 덕목은 자기 희생을 감수하면서 술선수범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일에 대해 열정을 갖고 최선을 다한다면 반드시 그에 대한 대가는 돌아오게 마련입니다. 동료와 후배들에게 그걸 보여주고 싶었습니다.”

이상한 대우건설 전무는 매일 새벽 5시에 일어나 6시면 어김없이 사무실에 도착한다. 그리고 그날 할 일들에 대해 잠시 체크한 뒤 바로 빌딩 지하에 있는 헬스장에 가서 1시간 20분 정도 운동을 한다. 운동을 마치고 사무실로 올라와 부서 회의를 한 후에 8시반에는 임원회의에 참석한다. 보통의 직장인들에게는 버거운 일임에 틀림이 없다. 그러나 그는 임원이 된 뒤로 이러한 생활 패턴을 깨본 적이 거의 없다. 열심히 살기 위해서다.

이처럼 일에 미쳐 버린 듯 열심히 사는 그에게 뒤늦게 상복이 터졌다. 지난 달 그는 서울시로부터 서울사랑시민상 토목부분본상을 받았다. 3월에는 토목의 날 행사에서 산업포장을 수상하기도 하였다. 모두 영예로운 상이다.

이 가운데 서울사랑시민상 토목 부문은 안전하고 수준 높은 서울시기반시설 건설과 토목기술 발전에 기여하고, 서울시의 발전과 시민 생활 향상에 기여한 시민과 단체에게 수여하는 것으로, 토목인의 자긍심을 높이는 상이다. “1980년 ‘서울의 봄’ 당시에 서울 지하철 건설에 참여해 2, 3호선은 현장 소장으로, 그리고 9호선은 담당 임원으로 일익을 담당하게 되었습니다. 특히, 9호선



의 경우 전체 14개 공구가운데 우리 회사가 5개 공구를 수행함으로써 가장 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아마도 이런 점이 서울시로부터 높은 평가를 받아 수상 영광을 안게 된 듯합니다.”

이상한 전무는 현재 회사 내의 서울지역 토목 사업을 총괄하고 있다. 더욱이 33년의 건설 경력 중 서울시내 현장에서 근무한 경험은 많고 모든 업무를 꿰뚫고 있다. 발주기관과의 연대도 끈끈하다. 그는 지금도 서울 지하철 2호선 강남역 구간을 성공리에 건설했던 것을 자랑스러워한다. 많은 어려움을 이겨냈기 때문이다. “당시 강남역 구간은 위로 경부고속도로가 지나감에 따라 지하 굴착 작업이 어려울 수밖에 없었습니다. 조그

마한 붕괴도 대형 사고로 이어질 수 있었지요. 그래서 당시로서는 최첨단 기술인 언더피닝 공법을 적용해 무사히 마칠 수 있었습니다. 이러한 경험은 신촌로터리 홍대입구 구간에서도 적용돼 난공사를 극복하는 바탕이 되었습니다.”

서울지역 토목 사업과 함께 이상한 전무가 역점을 두고 있는 분야는 상하수도 사업이다. 그에 따르면 대우건설은 단일 회사로서는 국내는 물론 세계 최대의 하수 처리 시설 건설·운영 실적을 자랑한다. 일처리 용량 300만톤의 시설을 이미 건설하였고, 전국의 각 곳에서 270만톤 규모의 시설을 건설하고 있다. 여기에서 200만톤의 하수 처리 시설은 직접 운영하고 있다. 전국 방방곡곡에서 쏟아져 나오는 오폐수를 정화하는데 대우건설이 선도적 역할을 하고 있는 셈이다. “흔히 토목을 환경 파괴의 주범이라 하지만 오폐수를 정화시켜 깨끗한 물로 순환시키는 것에서도 보듯이 토목은 환경 친화적이 될 수 있습니다. 더욱이 토목은 문화와 문명의 발원이 되는 공학으로서 인류가 존재하는 한 자손만대에 걸쳐 함께하게 될 것입니다. 토목을 ‘Civil Engineering’이라 부르는 연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이상한 전무는 평소 ‘최선을 다한다’는 말보다는 ‘재미있다’, ‘신바람난다’는 말을 좋아한다. 흥미가 있어야 일도 열심히 하고 성과도 오르기 때문이다. 사무실에 빠곡하게 들어차 있는 수주 기념패가 그가 얼마나 열심히 사는지를 대변해주었다. 

이형우 · 기자 · hwlee@cerik.re.kr